

Highlight #1: 색다른 기획전에서 만나는 현대미술 아이콘

뉴욕, 상파울루, 홍콩, 파리, 런던, 그리고 샤르자까지



미국, 뉴욕 <CHRIS OFILI: NIGHT AND DAY>



2014.10.29~2015.2.1 뉴뮤지엄(NEW MUSEUM)

1968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태어난 크리스 오피리가 미국 미술관 최초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뉴뮤지엄 3개 층 전체를 아우르는 규모로 20년 간 제작한 회화, 드로잉, 조각 30여 점 이상을 선보이는 자리다. 그는 성경, 힙합음악, 짐바브웨(Zimbabwe) 동굴 벽화, 블랙스 플로이테이션(Blaxploitation) 영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등 이질적이면서도 역사적으로 다채로운 소스에서 이미지를 따오거나 영감을 얻는다.



1990년대 초반 페인트, 레진, 반짝이를 비롯 심지어 코끼리의 배설물까지도 작품의 재료로 삼는 파격적인 회화를 선보여 왔으며, 전시작품 중 12점이 이 시기에 제작됐다. 2005년 트리니다드(Trinidad)로 이주한 후, 20세기 예술가 그룹 '청기사파'에서 이름을 딴 '청기사(The Blue Rider)' 시리즈에 몰입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방대한 양의 커다란 푸른빛 회화를 제작했다. 마시밀리아노 지오니가 아트디렉터를 맡은 이번 전시에서는 오피리가 직접 설계한 건축 디자인 아래 청기사 시리즈 중 9점을 최초로 공개한다.



Chris Ofili <Untitled (Afrom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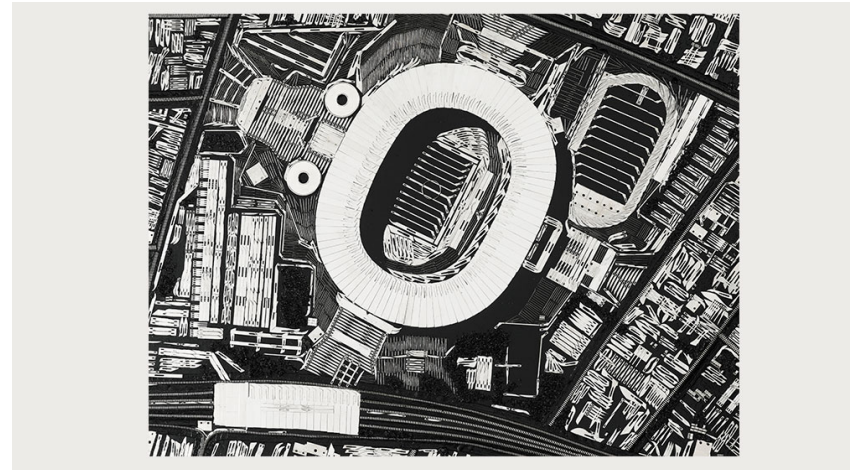
1995-2005 Watercolor and pencil on paper 24.3x15.7cm Courtesy the artist and David Zwirner, New York/London ©Chris Ofili

브라질, 상파울루 <DAMIEN HIRST: BLACK SCALPEL CITYSCAPES>

2014.11.11~12.24 화이트큐브 상파울루(WHITE CUBE SAO PAULO)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이자 영국 현대미술을 이끈 YBA(Young British Artist)의 멤버 데미안 허스트. 브라질 상파울루 화이트큐브에서 그의 새로운 시리즈가 공개된다. 이번 전시에서 인간이 만든 오브제와 자연적인 요소를 결합한 <Black Scalpel Cityscapes>를 선보이는데, 기존 작품에서 그가 캔버스 위에 나비나 파리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다면, 새로 선택한 재료는 면도날과 수술용 메스다. 까맣게 칠한 캔버스에 면도날, 메스, 지퍼, 낚시바늘, 후크, 쇠파이프, 안전핀 등을 세심하게 배열해 건물, 강, 길을 표현했고, 표면은 광택재로 칠했다.

규칙적인 패턴과 반복된 오브제의 집약은 그의 기존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상징적인 테크닉을 연상시킨다. 허스트는 이 전시를 위해 그의 고향 리즈(Leeds)를 포함한 17개의 도시를 선택해, 특히 각각의 도시가 가진 역사를 지역적으로 묘사하고 그려냈다. 그의 신작들을 통해 지난 세기동안 다져온 허스트표 예술의 발전 변천사를 살펴볼 기회다.





Damien Hirst <Leeds>

2014 Scalpel blades, skin graft blades, zips, fish hooks and gloss paint on canvas 182.9×274.3cm ©Damien Hirst and Science Ltd. All rights reserved, DACS

2014 Photo: Prudence Cuming Associates Ltd Courtesy White Cube

홍콩 <JEFF KOONS: HULK ELVIS>



2014.11.6~12.20 가고시안갤러리 홍콩(GAGOSIAN GALLERY HONG KONG)

국제적인 작가 제프 쿤스가 홍콩 가고시안갤러리에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인전을 개최한다. 1980년부터 인지도를 얻기 시작한 쿤스는 미디어가 강한 영향력을 끼친 영역 안에서 예술의 의미를 탐구했던 세대다. 초창기 시절, 동물 형태의 풍선 등 평범한 오브제를 반짝이는 표면으로 처리한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던 그는, 기존에 추구하던 오리지널 형태에서 점점 진화한 작업을 선보여 왔다. 이번 전시 <JEFF KOONS: HULK ELVIS>에서는 쿤스의 치밀하고 정교한 브론즈 조각 <Hulk Elvis> 시리즈가 소개된다.



쿤스가 미국의 인기 있는 만화 속 영웅 헐크의 형태를 한, 바람에 부풀린 풍선 모형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작업이다. 이러한 어린이들의 예술, 만화책 캐릭터, 고전적인 유물 형태 등은 그의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주요한 요소들이다. 쿤스는 이번 전시에서 문화적인 역사 안에서 공통의 실마리를 찾고, 인간의 정신의 깊숙한 부분을 건드리려 시도한다.



Jeff Koons <Hulk (Friends)>

2004-2012 Polychromed bronze 181×123.2×66 cm Edition of 3 plus 1 AP ©Jeff Koons

프랑스, 파리 <INSIDE>

2014.10.20~2015.1.11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

<Inside>전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자신 내부로의 여행이다. 전시가 관람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동시에, 팔레 드 도쿄 전시 공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메타포로 작용한다. 어쩌면 약간은 모험적인 여행이 될 수도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물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항해를 하게 된다. 또한, 전시 공간을 거닐며 한 설치작품에서 다른 작품으로 이어지는 예술가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전시를 보며 경험할 기나긴 여정은 '첫 여행'이라는 것이 가진 보통의 전형을 따른다.

물리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것으로, 심리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관람객들이 팔레 드 도쿄 공간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로 작용한다. 크리스찬 볼탄스키(Christian Boltanski, 1944-)와 브루스 나우만(Bruce Nauman, 1941-)과 같은 현대미술의 한 획을 그은 인물들도 전시에 참여해 이목이 집중된다. 이 전시는 관람객에게 예상치 못한 경험과 해프닝을 선사하는데 성공한 듯 보인다.





Andro Wekua <Untitled>

2011 Mixed media Dimensions variable Courtesy Gladstone Gallery, New York and Brussels ©Andro Wekua

영국, 런던 <MIRRORCITY: LONDON ARTISTS ON FICTION AND REALITY>



2014.10.14~2015.1.4 헤이워드갤러리(HAYWARD GALLERY)

현재 영국 런던 미술계를 이끄는 신진작가와 중진작가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Mirrorcity>의 참여 작가들은 디지털로 대변되는 현 시대를 살아가며 첨단 시대가 겪는 도전, 조건, 결과를 회화,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등을 다양한 매체로 선보이며, 디지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끼친 영향을 탐구한다. 전시는 가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는데, 이는 특히 요즘 다양한 소셜 미디어 타입의 인터넷에 대한 중독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삶 대부분이 두 영역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다.



지난 세기동안, 작가와 예술가들은 삶의 대안적인 리얼리티를 탐구했다. 이번 전시에서 ‘거울’은 본래의 형태와 현저히 다른, 잘 보이지 않는 그늘진 세계로 가는 우리 삶의 창구로 역할 한다. <Mirrorcity>전의 작가들은 디지털, 물리적, 허구적인 오버랩과 교차점 사이의 공간을 탐험한다. 작가들이 만들어낸 거울 도시로 여행을 떠나봄이 어떨까?



Installation view <MIRRORCITY>

at Hayward Gallery 2014 Photo: Linda Nyland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SECONDS>

2014.10.11~12.10 SAF 아트 스페이스(SAF ART SPACES)





Mohammed Kazem <My Neighbours (Detail)> / 2006 Digital Print 70×50cm

샤르자 예술재단은 온라인 저널 『/seconds』(2004-2014)가 선별한 작가들의 전시를 개최한다. 다양한 영역의 이슈와 다채로운 문화적 시선을 통한 예술을 소개하는 이 잡지가 2004년 발간된 이래 1,500여 명 이상의 예술가와 필자들이 거쳐 갔다. 큐레이터 피터 루이스가 기획에 참여해, 10년 동안 매거진에 소개한 주요 인물들을 선별했다. 전시작품들은 설치,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영상, 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는 한 편, 어마어마한 규모의 커미션 포스터를 함께 전시해 눈길을 끈다.

전시 공간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포스터사이즈의 이미지들로 꽉 차 있다.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작품들이 최초 공개되는 것은 물론 큐레이터의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발췌한 이미지들도 함께 포함됐다. 각각의 전시작품에는 개별 캡션이 없는 것이 이 전시의 또 다른 특징인데, 전시의 모든 오브제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보다는 조화를 이루며 함께 어우러지기 때문이다. 영상과 오디오로 구성된 특별 섹션에도 주목할 만하다. ■ with ARTINPOST